

“오직 너희는 백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자님의 평안으로 문안드립니다.

이곳 인도는 매년 가을에 어둠을 밝히는 '디왈리' 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힌두교 최대 축제 중 하나인 디왈리는 '빛의 축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전구나 초, 등불 등을 이용해 주변을 밝게 장식합니다. 크리스마스와 비슷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축제는 총 5일간 진행되며 인도에서 가장 큰 명절에 해당하는 만큼 거의 모든 인도인들이 디왈리를 손꼽아 기다리며 전투를 하듯 폭죽 놀이로 어디를 가든지 매캐한 화약 냄새와 함께 화려한 불꽃놀이를 즐깁니다. 이로 인해 소음과 공기오염으로 나라 전체가 전쟁터를 방불케 됩니다. 사람들은 달콤한 전통 스위트(Sweets)를 즐기고, 친지들을 방문하여 선물을 교환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이 시즌이 가장 경기가 활발하고 매출이 높은 때입니다.

이 축제기간에 인도 총리의 국민 초청으로 우리나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다녀 갔습니다. 두 나라의 친선 교류 증진 목적인 방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축제의 영적인 내면과 초청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면 다시 생각해 볼 측면들이 있습니다.

현 정권은 힌두 민족주의자들이며 힌두국가완성을 추구하며 타 종교를 전면적으로 압살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외부에는 이러한 힌두국가정책을 순화하여 알고자 처음으로 힌두교 최대 의식인 '디왈리' 명절의 점등행사에 국민으로 김정숙 여사를 초대한 것입니다.

이 축제는 완전한 힌두교 축제입니다. 한 우상의 7번째 화신의 환생과 악마를 이긴 것을 숭배하는 의식의 축제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의식으로 달이 없는 가장 어두운 밤에 등불을 환하게 장식하고 화려하고 소란한 불꽃놀이를 합니다. 이는 우상숭배인 사탄의 속임수와 그 흑암 중에 사는 백성들이 참 빛과 참 진리를 찾는 울부짖음과 절망적인 영혼의 의식의 발로인 것입니다.

여기에 인도사교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스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스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어두움에 거하며 빛을 찾고 밝히기를 원하나 참 빛은 깨닫지 못하고 아예 참 빛을 싫어하여 거부합니다. 회를 파괴하며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사기자들을 추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어두움에 잃어버린 13억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며 회환하시길 원합니다.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보듬의 빛을 비추시길 원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사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방과후 학교와 주일학교 등으로 협력하던 AFPH회와의 사역은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기아대책의 아동후원결연이 장기간 지연이 되며 사역자의 이탈과 회 내부의 사역적인 문제와 마을에서 사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회와 마을에서 철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엡 3:20) 께서 첸나이 시내 북부 지역으로 사역을 옮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젊고 열정있는 현지 목사님 부부가 영혼 회원을 위한 사역의 확장을 위하여 사기사와 협력을 위하여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 대다수가 사기사와 동역하길 원하는 것은 재정적인 지원이나 회회건축을 위한 것이기에 처음부터 협력의 목적을 '오직 영혼 회원을 위한 보듬기도와 말씀 훈련과 양육'으로 서로 간에 확정하였습니다. 첫 2년간에는 재정지원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이 지나자 회회 증축을 위한 자신들의 비전을 나누고 싶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9월부터 제자훈련을 이 '회원자 중심 그리스도 회(SJCC)'에서



시작하였습니다. 29명이 등록하였는데 회회 성도 30% 정도가 성경공부의 열정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등록비도 받고 간식 등도 스스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읽기쉬운 타밀 성경책과 제가 번역한 타밀 성경교재를 나누어 주며 관심과 열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들 중 성경을 통독한 사람도 없고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우상숭배의 종교와 문화 가운데 핍박을 이겨내며 오스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훈련을 통하여 홀로 어둠을 아는 지식과 말씀을 배워 믿음이 더욱 자라고 오스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어 이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보듬의 빛을 발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님의 사랑 안에서 동역자님의 회도와 성원에 감사로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운 계절에 따뜻한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시길 회도드립니다.

응원해 주세요!

1. 회회를 핍박하며 사기사를 추방하는 이 땅의 공중권세와 악한 영을 멸하시고 보듬의 문을 열어주소서.
2. 제자훈련을 통하여 보듬과 영혼 회원에 열정이 있는 제자들을 허락주소서.
3. 회회개혁: 제자훈련을 통한 양육된 제자들과 영혼 회원하여 제자삼는 회회를 개혁케 하소서.
4. 주일학교 및 방과후 학교: SJCC에서도 어린이 회도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예비주소서.
5. 안정적인 비자 및 신분 유지
 - 비자와 거주증을 유지할 수 있는 세금 납부액을 채워주소서.

2018. 11 월

타밀나두에서

정자호/회기 드림



<제자훈련과 설교>

제자훈련 매주일, 설교 매월 마지막 주 1회



<목회자 부부와 함께>